

‘골프 한국의 날’ 임성재·고진영 동반 우승



PGA 투어 슈라이너스 칠드런스 오픈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린 임성재.



LPGA 투어 코그니전트 파운더스컵 정상에 오른 고진영.

고진영(26)과 임성재(23)가 미국프로골프 남녀 대회를 같은 날 제패했다.

여자 골프 세계 랭킹 2위 고진영은 11일(한국시간) 미국 뉴저지주 웨스트 콜드웰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코그니전트 파운더스컵(총상금 300만 달러)에서 최종합계 18언더파 266타로 우승했다.

2위 카롤리네 마손(독일)을 4타 차로 여유 있게 따돌린 고진영은 이 우승으로 자신의 LPGA 투어 통산 10승을 달성했다.

7월 VOA 클래식, 9월 캄비아 포틀랜드 클래식에서 이어 고진영의 이번 시즌 3승이자 LPGA 투어 통산 10번째 우승이다. 이번 대회 우승 상금은 45만 달러(약 5억3000만원)다. LPGA 투어에서 10승을 채운 한국 선수는 박세리(25승), 박인비(21승), 김세영(12승), 신지애(11승)에 이어 고진영이 5번째다.

고진영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도 10승을 보유했다. 박세리(국내 14승), 신지애(국내 21승)와 더불어 한국, 미국 투어 모두 두 자릿수 승수를 올린 선수가 됐다.

임성재, PGA 슈라이너스 칠드런스 오픈 24언더파 정상 고진영, LPGA 코그니전트 파운더스컵 18언더파 우승컵

임성재는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슈라이너스 칠드런스 오픈(총상금 700만 달러)에서 최종합계 24언더파 260타로 정상에 올랐다.

역시 2위와 격차를 4타로 벌인 임성재는 지난해 3월 혼다 클래식 이후 1년 7개월 만에 투어 2승째를 따냈다. PGA 투어 100번째 출전한 대회에서 통산 2승을 달성한 임성재의 이번 대회 우승 상금은 126만 달러(약 15억원)다. 이 우승으로 한국 선수들은 PGA 투어에서 통산 20승째를 쌓았다.

한국 국적의 선수들이 같은 날 PGA와 LPGA 투어 대회를 동시에 제패한 것은 한국 날짜 기준으로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같은 주말에 한국 선수들이 PGA와 LPGA 투어 대회에서 동반 우승한 사례는 세 번이 있었다.

2005년 10월 최경주(51)와 한희원(43)이 ‘동반 우승’을 했는데 날짜가 하루 차이가 났다. 당시 한희원이 우승한 LPGA 투어 오피스디포 챔피언십이 대회 도중 악천후로 예정보다 하루 늦은 현지 날짜 10월 3일에 끝났다.

또 2006년 10월에도 최경주와 홍진주(38)가 같은 주말에 우승 소식을 전했는데 당시 최경주는 미국에서 열린 크라이슬러 챔피언십이었고, 홍진주는 국내에서 열린 LPGA 투어 코오롱·하나은행 챔피언십을 제패해 한국 날짜로는 역시 하루 차이가 났다.

이어 2009년 3월 양용은(49)과 신지애(33)가 역시 같은 주말에 우승했으나 이때도 신지애의 대회가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국 날짜로는 하루 먼저였다. 또 LPGA 투어 대회는 아니지만 2016년 8월 박인비(33)가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낸 다음 날 김시우(26)가 PGA 투어 대회 정상에 올랐는데 이때도 박인비의 경기가 하루 먼저 끝났다.

2014년 4월에는 노승열(30)과 교포 선수 리디아 고(뉴질랜드)가 같은 날 우승한 사례도 있다.

결국 이번 고진영과 임성재의 미국 남녀 대회 같은 날 한국 선수들의 동반 우승은 한국 날짜 기준으로는 최초, 현지 날짜 기준으로는 2006년 최경주-홍진주, 2009년 양용은-신지애에 이어 세 번째 쾌거가 됐다.

임성재는 우승 후 인터뷰에서 “(고진영의 우승 소식을) 지금 알았다”며 “한국 선수가 남녀 동반 우승하는 것이 드문데 (고)진영 누나께도 축하드린다. 한국 사람으로서 뿌듯하다”고 기뻐했다. /연합뉴스

KIA, 선수운영 미래·현재 동시에 잡아야

T 타이거즈 전망대

한화에 3연승 ... 꼴찌 싸움 끝
오늘부터 삼성과 홈 3연전
15일 KT·주말엔 두산과 대결
내년 위해 기대주들에 투자를

‘최하위 싸움’을 끝낸 KIA 타이거즈가 ‘진짜’ 순위 싸움의 중심에 선다.

KIA는 지난 주말 한화와 최하위 싸움을 하며 눈길을 끌었다. 앞선 만남에서 1승 1무를 기록했던 KIA는 1주일 만에 재개된 ‘리턴 매치’에서는 싸움이 3연승을 기록했다.

9일 김선빈의 3안타 4타점 활약으로 6-4 승리를 거뒀고, 10일 진행된 더블헤더도 모두 승리로 장식했다.

1차전에서도 김선빈이 동점 적시타를 기록하며 활약을 이어갔고, 상대 실책으로 3-1 역전승을 기록했다. 2차전에서는 6이닝 무실점의 호투를 선보인 임기영을 앞세워 5-0 영봉승을 기록했다.

싸움이 3연승과 함께 10일 한화와의 5.5경기 차로 밀어내면서 ‘최하위 싸움’은 사실상 KIA의 승리로 끝난 모양새다.

새로운 한 주 KIA는 ‘진짜’ 순위 싸움의 중심에 선다.

KIA는 12일부터 삼성을 상대로 홈 3연전을 갖는다. 15일 수원으로 올라가 1위 KT를 상대하고, 주말에는 잠실로 이동해 두산과 대결한다. 17일 더블헤더가 진행되면서 두산전 3연전 등 총 7경기를 치르게 된다.

이번에 만나는 상대는 모두 ‘가을 잔치’를 기대하고 있는 팀들이다.

삼성은 3위 자리에서 2위 LG와 승차 없는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KT와 3.5경기 차이는 하



김선빈

지만 1위 가능성도 남겨놨다.

KT는 1위 독주를 이어가며 매직넘버 줄이기에 고심하고 있고, 4위 두산은 1.5경기 차 공동 5위 NC·키움·SSG의 추격을 받고 있다.

KIA전 성적에 따라서 5강 싸움을 하는 팀들의 표정이 엇갈리게 될 한 주다.

순위 싸움의 키를 쥐고 있지만, ‘가을잔치’를 앞둔 팀들과 무리해서 호흡을 맞출 필요는 없다.

사실상 9위가 올 시즌 KIA의 자리다. 올 시즌 실패를 인정하고 KIA만의 호흡으로 내년 시즌을 위한 밑그림을 그려야 하는 시기다. 그런 면에서 최근 윌리엄스 감독의 행보는 팬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한화전 3연승으로 ‘승자’는 됐지만 ‘내일이 없는’ 승리였다.

KIA는 9-10위 싸움을 위해 베스트 멤버를 풀가동했다. 장현식은 더블헤더 1·2차전에 모두 출격하는 등 한화전 3경기에서 나와 3홀드를 수확했다. 8일 LG전 등판까지 4연투, 6일 롯데전까지 5경기에 나왔다.

KT 주권을 따돌리고 홀드 단독 1위로 올라섰다고 하지만 팬들이 기쁨보다 우려를 표하는 이유다.

장현식은 올 시즌 63경기에서 나와 무려 71.1이닝을 소화하고 있다. 선발로 많이 뛰었던 2017년 이후 최다 이닝이다.

10위 한화와의 ‘그들만의 가을잔치’는 끝났다. 내년 시즌을 위해 주축 선수들의 부상을 견제하고, 내년 시즌을 위해 기대주들에게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마운드는 물론 야수진의 운영도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엔트리에는 있지만 라인업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들도 있다.

선수들을 쥐어짜서 만들 수 있는 마지막 목표는 8위다. 6.5경기 차 8위를 위해 ‘오늘만 있는’ 운영을 한다면 내년 시즌에도 KIA의 성적은 볼 보듯 뻔하다.

신구 조화로 현실과 미래를 동시에 잡아야 한다. 베테랑의 ‘경험’과 신인들의 ‘패기’를 잘 묶어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키며, 2022시즌을 구상해야 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오늘 축구 한국-이란전 아자디 경기장 ‘무관중’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도전하는 벤투호가 이란 원정에서 현지 관중의 일방적인 응원에 대한 부담은 덜게 됐다. 한국-이란의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4차전 경기를 무관중으로 개최하는 것이 확정됐다.

이란축구협회는 10일 홈페이지에 이번 경기를 관중 없이 치른다고 발표했다.

한국과 이란은 우리시간으로 12일 오후 10시 30분 이란 테헤란의 아자디 스타디움에서 카타르 월드컵 최종예선 4차전을 벌인다.

아자디 스타디움은 약 7만8000석 규모지만 최

대 10만여 명까지 입장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발 1273m의 고지대에 있어 ‘원정팀의 무덤’으로 불린다. 통산 상대 전적에서 이란에 9승 9무 13패로 열세인 한국 대표팀은 이란 원정에서 아예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다. 최근 3연패를 포함해 2무 5패를 기록 중이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이란 팬들의 열성적 응원에 대한 부담은 피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비디오판독(VAR)이 시행되지 않는 등 여전히 변수는 있다.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이번 경기에는 VAR이 시행되지 않는다. /연합뉴스

광주 나민주·서정원, 전남 조민재·김채연 ‘3관왕’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광주선수단이 경북 구미 등지에서 열리고 있는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역도·체조 부문에서 3관왕 2명을 배출했다.

광주 역도 기대주 나민주(정광고 3)는 지난 10일 안동대 체육관에서 열린 남고부 67kg급 경기에서 인상 118kg, 용상 151kg, 합계 269kg을 들어올려 대회 3관왕에 올랐다.

나민주는 지난 7월에 열린 제48회 문체부장관기 전국학생역도대회에서도 인상, 용상, 합계에서 1위를 차지하며 3관왕에 오른 바 있다. 나민주는 중학생 때 출전한 소년체전을 비롯한 전국대회에서 메달을 휩쓸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체조에서도 3관왕이 나왔다. 남고부 개인종합에 출전한 서정원(광주체고 3)은 79.400점으로 대회 첫날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지난 10일 평행봉과 링에서도 금메달을 따내 대회 3관왕에 올랐다. 서정원은 마루에서 13.875점에 그쳐 은메달을 획득했다.

전남의 첫 3관왕은 역도 조민재(전남체고 2년)가 차지했다. 조민재는 지난 9일 용상 -61kg급 경기에서 인상 140kg, 인상 117kg, 합계 257kg을 기록, 금메달 3개를 목에 걸었다. 자전거 여고부 스포츠프린트 김채연(전남체고 2년)도 자전거 500



역도 나민주

체조 서정원



역도 조민재

자전거 김채연

m특주, 단체스프린트, 스포츠프린트에서 금메달 3개를 따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